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방언 보존 정책

문 성 숙 *

1. 서 론

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화사회이며 지식기반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그것의 생산·교환·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산업사회를 물질 상품이 통용되던 사회라고 한다면 정보화·지식기반사회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상품의 질이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은 물론 개인의 복지와 번영을 결정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경쟁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방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도에서는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JFIC : Jeju Free International City)’로 육성하려는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3호로 전문 13장 112조, 부칙 16조로 제정되었다. 특별법 조항에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해외협력, 외국인 자유왕래와 의사소통의 촉진,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산업발전과 개발사업,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의 시행 문제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중 영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어교육이 강화되고 외국어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시행된다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부터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을 근본적·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현행처럼 영어교육이 시행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법과 교육제도, 사회구조 자체에 혁신적인 조치와 변화 없이는 법령 내용의 현실화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외국어 교육 강화가 법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국어와 제주방언 사용의 혼란과 파괴 등 제반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언어규범에 따른 언어생활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어문체계의 혼란과 오염 정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어와 제주방언에 대한 언어정책과 언어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언어와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서비스 강화 정책 시행 못지 않게 국어와 제주방언 보존 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서 모국어가 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아 사고하고 경험하며 행동한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국어 또는 각 지역의 방언을 생활언어인 제1언어로 사용해 왔다. 우리에게 특별히 제2언어라고 인식될만한 언어가 달리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어 또는 방언과 제2언어인 영어를 제도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들 언어 가운데 일상적으로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계층이 나누어져 계층간 사회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른바 ‘언어에 의한 서열(linguistic hierarchy)’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도 저해요인이 된다. 언어의 서열이 낮기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 제도나 권리 등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몽골의 지배와 일본의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일어상용’이라는 억압적 상황 속에서도 국어를 온전하게 지켜온 역사적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그만큼 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2. 제주방언의 개념과 범주

1) 제주방언의 개념

표준어는 한 국가의 언어정책상 어떤 특정 지역의 방언을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이다. 대개 한 나라의 수도나 문화중심 지역의 언어를 표준어로 지정하는 것임으로 표준어라고 해서 처음부터 언어 구조상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특별히 우월한 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방언은 공용어인 표준어에 비해 열등하고 나쁜 말씨가 아니라 한 개별언어의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나타난 분화형들이다. 그러므로 방언이 표준어에 비하여 거칠고 우아하지 않은 나쁜 말씨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국어의 표준어인 서울 말씨도 따지고 보면 서울 지역의 방언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방언에 비해 표준어만이 품위 있는 우월한 말씨라는 편견을 버리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유사 이래 단일민족이며 언어문화공동체로서 단일언어권으로 지역간 방언들이 존재하고 있다. 단일언어 체계 내에서 지역에 따른 방언이 존재하지만, 표준어로서 공용어 지정이 다중언어 체계 국가에서 자국민 통합을 위해 특정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광복 이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면서, 정부의 국어정책 방향은 각급 학교에서 표준어 교육과 보급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펴 왔고, 이러한 언어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어인 표준어가 각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우월의식이 싹트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언어학에서는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의적인 음성기호 체계를 갖추고 사회집단이 상호의사소통과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언어라고 한다. 언어는 반드시 국가 단위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라가 달라지면 언어도 달라진다. 이와 같이 한 국가에서 쓰는 언어 또는 그 나라의 공용어라는 뜻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말을 쓴다.

한편 하나의 국가를 단위로 하여 그 안에서 한 가지 표준어를 지향하며 한 가지 정서법으로 표기되는 말이면, 그 말들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거나 상호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면 한 언어라는 인식을 가진다. 국어도 마찬가지다. 우리말은 우리 나라 사람의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이 지향하는

정서법으로 표기되는 말이므로 국어 또는 한국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적, 또는 사회적 언어 변종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이 방언이 언제나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방언이란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¹⁾ 하나는 표준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 때는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어로서 어느 시골의 말, 나아가서는 표준어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언어를 일컫는다. 그만큼 방언은 세련되지 못하고 격을 갖추지 못한 변방의 말이라는 의미가 강화된다. ‘제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라고 할 때 ‘사투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한 지역의 언어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말 가운데서 표준어에는 없는, 그 지역 특유의 언어요소만을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는 ‘방언’이란 말보다 ‘사투리’라는 용어가 더 어울린다. ‘제주 사투리’라고 하면 표준어가 아닌, 그리고 세련되지 못하고 격을 갖추지 못한 제주 지역 특유의 말만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이 때의 방언을 지역방언(local or regional dialect)이라고 한다. 지역방언이란 지역이 서로 다름으로 해서 방언이 발생하는 것이다. 큰 산맥이나 강, 대륙 깊숙이 들어온 만(灣) 등 지리적인 장애가 있거나 워낙 원거리여서 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접촉과 교류가 거의 없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점차 다른 모습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두 지역간 지리적 단절이나 교류의 부재로 인하여 분화되는 방언을 지역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지역방언을 두고 ‘○○지역어’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언어학이나 방언학에서 말하는 개념이다. 이 때는 방언이 표준어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단위로서의 언어체계 전반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어는 각 방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집합체로서 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구성하는 하위형식들이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은 제주도 토박이들이 전래적으로 사용해온 국어 전부를 가리킨다. 곧 방언이라고 하면 한 개별언어의 하위형식으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형식인 것이다.

이 때의 방언을 사회방언(social dialect)이라고 한다. 사회방언이란 사회계층에 따른 방언 차이,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간의 방언 차이, 남성과 여성의 방언차

1)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98, pp.11~14참조.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방언이 분화되는 것이다. 사회방언은 또한 계층방언(class dialect)이라고도 하는데, 방언 분화의 여러 요인 가운데 사회계층 요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방언은 위의 지역방언과 함께 2대 방언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중요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방언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방언간의 차이가 지역방언간의 차이만큼 뚜렷한 분화나 경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방언은 또한 어느 사회에나 일반적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제주도의 경우 이 사회방언의 분화는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그것은 사회방언 분화의 주요 요인이 되는 사회계층의 분화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방언'을 '제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형식으로서 독자적인 언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표준어와 상이한 특성은 물론 공통적 특성을 포함한, 제주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제주방언'은 표준어에도 없고 다른 지역의 말에도 없는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특유의 언어요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 토박이들이 전래적으로 써 온 생활언어로서 국어 전부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제주 지역 토박이들은 국어인 표준어나 다른 지역방언을 혼용해 왔던 것이 아니라, 제주방언만으로 모든 언어생활을 해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 표준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쓰는 말이라도 제주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면 곧 제주방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는 화교출신들이 소수민족을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도 제주에 살아가면서 국어와 제주방언을 배우고 익힌다. 자기들끼리는 모국어인 중국어를 쓰지만, 국어와 제주방언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일전에 한 공동여당의 대표가 충청방언이라고 하면서 '몽니'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몽니'는 제주방언에도 나타나고, 표준어 국어사전에도 엄연히 등재되어 있는 국어인 것이다. 곧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을 뜻하는 '몽니'는 '몽니를 부리다'와 같은 문장에서 쓰이는 서울방언이자 충청방언이며 동시에 제주방언인 것이다.

방언과 관련된 용어 개념도 언어학이나 국어학의 테두리 내에서 언급하는 바, 표준어에는 없는 그 지역의 독특한 말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사투리'라는 말보다는 '제주(도) 지역어'가 타당하고, 그 보다는 '제주방언' 또는 '제주도 방언'이라는 용어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방언'이라는 개념은 표준어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방언'이란 개념이 품위가 떨어지거나 세련

되지 않은 거친 언어형식, 곧 어떤 표준적인 언어형식에서 이탈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언어 변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표준어에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언어학이나 방언학,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쓰는 방언의 개념에도 부합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제주방언의 개념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용어들의 개념과 범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방언(dialect) : 한 언어의 하위류를 이루는 변종(variety)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 언어가 지역적으로 달리 변화하여 어느 정도 상이한 체계를 이룰 때 각각의 지역에 분포된 언어체계를 그 개별언어에 대하여 지역방언이라고 한다. 제주방언은 독자적인 언어체계를 이루면서도 우리 나라 다른 지역의 언어체계와 상이한 체계를 이루는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방언’이라는 용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투리 : 방언이나 지역어라는 말의 순수국어이다. 고유어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지 못한 시골말, 이미 열등한 말이라는 가치평가가 된 용어이다. 시골말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말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골뜨기들이나 사용하는 말이다. 다른 지방의 말들과 비교하거나 대조를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로 시골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어(regional language) :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이 그 특정 지역에서 공통으로 쓰는 언어이다. 곧 지역 공통어로 지방어(provincial language)라고도 한다. 지역어는 특정 지역의 언어를 독립된 언어체계로 이해하려 할 때의 용어이다. 주로 방언 구획과는 관계없이 부분적인 어떤 지역의 말을 조사할 때에 그 지역의 말을 이른다. 일례로 ‘경주 지역어’, ‘강화도 지역어’, ‘서귀포 지역어’ 등이 그것이다.

2) 제주방언의 범주

공용어인 국어나 표준어에 비해서 방언은 그 자체를 천시하거나 틀리거나 잘못된, 아니면 무지한 사람들의 언어쯤으로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표준어란 자국민의 국론통일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한 국가의 통치수단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표준어가 지정되면 각 지역의 방언은 공식적인 교육언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지역의 토착어로 존재한다. 그 지역 방언은 각각 개별적인 언어 매체를 지니면서 그 지역내의 생활언어가 되어 있을 뿐이지 잘못되었거나 틀

린 언어 즉 틀린 국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사투리를 쓰지 마시오.’ 또는 ‘사투리가 많아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문장 속에는 천시와 비하의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방언을 표준어와 차등 대우하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들 사이에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서로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다. 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먼 지역의 언어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각 방언 사이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제주방언을 제주지역에서 사용하는 국어 또는 국어의 하위언어 체계로 이해한다면 국어와 제주방언에 대한 개념 문제와 국어와 제주방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먼저 국어와 제주방언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자. 우리 국어는 지역별로 여러 개의 하위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위방언(이를 ‘개별방언’이라고도 한다)들은 여러 가지 말씨(accent)가 모여 성립되고, 말씨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개인이 사용하는 말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말을 특별히 구별하여 개인어(idiolect)라고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방언을 개인어 정도의 작은 크기로 세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어가 상위개념이라면 제주방언은 그 하위개념이다. 말씨란 화자가 발음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성학적 또는 음운론적으로 상이한 비체계적인 변종을 뜻한다. 제주방언은 음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법론·어휘론적으로 국어와는 상이한 체계로 변종을 이루고 있다.

국어와 제주방언의 범주를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범주 설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국어와 제주방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상호의사소통력(mutual intelligibility)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말의 차이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자기 지역의 말을 주고받아서 의사가 소통되면 상호의사소통력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 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두 지역의 말은 별개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역별로 말의 차이가 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2) 이익섭, 전제서, pp.15~17참조.

상태는 아니어서 대부분 상호의사소통력이 있다. 그만큼 지역간 말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말소리나 의미가 얼마쯤 달라진 낱말이나 표현이 있지만, 그 이질성이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크지 않다. 서울사람과 제주사람이 만나 서로 자기 지역의 말을 해서 큰 불편 없이 의사가 소통되면 그 두 사람이 쓰는 지역 말은 한 언어, 곧 한국어 또는 국어의 방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언어에 속하는 방언들이면서도 상호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만큼 그 차이가 클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중국과 같이 지역이 넓은 나라에서는 표준중국어인 북경관어(北京官語)와 광둥(廣東) 지역의 방언은 같은 중국어이면서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에는 네 개의 방언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언권들 사이에도 상호의사소통력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같은 중국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북경 지방의 표준중국어가 아닌 방언권의 말이라고 해서 중국어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주 지역에서 순수한 제주방언만을 사용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렵다고 한다. 이럴 때 단일언어권 내에서도 방언간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각각 자국의 국어가 있어 전혀 다른 언어권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 세 나라는 별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상호의사소통력이 매우 큰 경우도 있다.

둘째, 위의 상호의사소통력이 절대적인 구분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함께 원용되는 것이 영토나 국경선, 국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대개 언어는 영토나 국경선, 국가 등을 배경으로 하는 언어정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가 두 번째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례이다. 미국 지역 쪽 사람들은 멕시코어 요소가 많이 섞인 말을 쓰면서도 영어정서법을 쓰고 표준영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영어인 것이다. 같은 논리로 멕시코 쪽 사람들의 말은 멕시코어인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방은 국경선이라는 경계가 있지만, 두 지역 사람들이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언어 요소도 서로 섞이게 되면서 비롯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몽고의 지배와 일제강점기 때의 '일어상용' 정책 등으로 언어에 시련과 변화를 겪은 적은 있지만, 언어 요소가 섞이지 않고 우리말을 굳건히 지켜왔다.

셋째, 성문화된 표준어도 개별언어 구분의 기준이 된다. 성문화된 표준어와 같

은 정서법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경우 한 언어의 개별언어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스칸디나비아에서 노르웨이어나 스웨덴어 및 덴마크어는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한 데도 개별언어로 인식하고 있다.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어나 웨일스어가 소멸되지 않고 통용되고 있다. 이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언어의 정서법과 문법이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로 된 문학작품까지 창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어인 언어와 개별언어인 방언의 범주를 규정하는 기준은 정치·사회·문화·경제·통혼·교육 등의 다양한 요인과 상관관계 속에서 개념과 범주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결국 국어와 제주방언은 위의 여러 구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상호의사소통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테두리 안에서 표준어 또는 공통어 교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어는 상위개념이고, 제주방언은 그 하위개념임에 틀림없다. 다만 제주도라는 지리적 차이에 따라 모체(母體)에서 분화체(分化體)로 언어분화가 일어났으므로 국어의 한 방언이지만, 본래 뿌리가 같은 단일언어 체계인 것이다. 다만 제주도라는 특정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제주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여러 방언들 중에서 제주방언은 매우 특이한 언어체계를 이루고 있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 다른 지역 방언들은 지역이 인접해 있어 서로 교류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지역 방언들 사이에는 언어의 요소도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지정학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외떨어져 있는 제주방언은 역사적으로 다른 방언들과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국어의 방언 분류체계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제주방언뿐이다. 다른 지역 방언과의 경계선도 분명하고 다른 모든 방언과 대립되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 독자성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주방언이 단일언어 체계 내에서 분화된 것이지만, 그 크기와 범주는 여러 층위에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같은 제주방언도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의 말에서 발음, 어휘, 억양 등이 조금씩 다르게 실현된다. 또 동서로 긴 제주의 지리적 조건은 성산포 지역과 대정읍 지역의 말도 세밀한 부분에서는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쓰는 말에 언어 분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제주도라는 좁은 지역 내에서도 이와 같이 방언의 하위분화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

면 ‘성산포 방언, 서귀포 방언’ 등과 같이 작은 단위로 명명할 수도 있는 일이다. 방언이란 특정 지역 단위의 언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나 심지어 마을 단위로도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방언의 크기와 범주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구획의 경계가 자유로운 개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 언어의 하위체계이며 분화체인 제주방언은 그 크기나 층위에 구애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제주(도) 방언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제주방언의 범주는 제주도과 그 부속도서에서 사용하는 언어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3. 제주방언의 중요성

1) 제주방언의 언어적 중요성

제주도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언전파설이나 지역언어학의 관점에서 보아 보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관련학계에서 관심이 모아져 왔다. 제주방언에는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에서 지금은 소멸된 것으로 파악하는 한글자모 중 일부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등 고어의 보고라 일컬어진다. 특히 음운사적으로 아래 아 ‘·’가 제1음절에서 유지되고 있는 사실과 받침음 ‘△’의 형태가 남아 있으며, ‘ㅂ’계의 어두자음군이 거센소리인 유기음으로 변화한 사실 등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또 문법형태소의 형태론적 특성과 어휘면에서의 중요성도 자주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방언의 언어적 중요성은 이처럼 음운과 문법, 어휘 등에서 그대로 확인되므로 제주방언은 ‘언어의 보배’라 할 수 있다. 그 예를 몇 가지로 들어보기로 하자.

중세국어에 있던 음소로서 현대국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소멸한 것 중 대표적인 음소는 아래 아 ‘·(으)’이다. 비원순모음으로 음가 [ʌ] (영어 come의 발음에서 확인 가능) 음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음소는 현대국어에서 대개 ‘ㅏ(아)’나 ‘ㅡ(으)’, 또는 ‘ㅓ(오)’로 바뀌었다. 우리 국어와 방언들 중 이 ‘·’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방언이 제주방언이다. 이 ‘·’를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경기도 방언, 제주도 방언 등 이른바 국어의 6대 방언 중 하나의 자격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다음 어휘들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돌(달, 月), 드리(다리, 橋), 솔(살, 膚), 므슬(마을, 里), 프리(파리, 蠅)
 흑·홀(흙, 土), 농스(농사, 農事), 즈식(자식, 子息), 스슴(사삼, 四三)
 곶다·곶다(曰), 하다(하다, 爲)

이 단어들에 쓰인 ‘·’는 중세국어에서도 ‘·’로 표기되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그 음가도 [ɔ](열린 [o], 원순후설저모음, 영어의 all의 발음에서 확인 가능)로서 [ʌ]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 방언의 어느 모음과도 같지 않은 모음이다. 중세국어의 ‘·’의 후신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 ‘·’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언 구획에 기여할 현상이 하나 더 있다. 제1음절의 ‘·’는 표준어에서 대부분 ‘ㅏ’로 변했다. 그런데 국어의 방언 곧 경상남도, 전라남도, 함경북도 육진 등의 방언에서는 그것이 순음 다음에서 대부분 ‘ㅓ’로 변하였다. 다음에 그 용례를 제시한다.

모살(←므살:마을, 里), 몰(←몰:말, 馬), 포리(←프리:파리, 蠅)
 팔(←폴:팔, 臂), 놈(←눔:남, 他人), 폴다(←폴다:팔다, 賣)

그런데 제주방언에서는 순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 뒤에서 ‘ㅓ’로 변하고 있다. 아마 ‘·’의 음가대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표준어와 같이 ‘ㅏ’로 변하지 않는 것도 특이하다. 제주방언에서 확인되는 ‘므슬(里), ㄹ슬(秋)’ 등은 중세국어 ‘므숯, ㄹ숯’에서 둘째 음절의 ‘·’는 △ 아래에서 ‘ㅓ’로 변하고 음절 말에서 발음 ‘ㄹㅎ’이 ‘ㄹ’로 실현되고 있다(‘ㄹ슬틀민’과 같은 경우에는 ‘ㄹㅎ’이 실현됨). 그런데 ‘마눔, 바당’의 경우는 중세국어 ‘마눌ㅎ[蒜], 바당[海, 재구음은 ‘바들’]에서 둘째 음절 ‘·’는 ‘ㅓ’ 또는 ‘ㅏ’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음절말에서 발음 ‘ㄹㅎ’이 ‘ㅇ’으로 실현되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던 ‘△’는 표준어에서는 완전히 탈락하여 현대국어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는 이것이 ‘ㅓ’으로 나타난다. ‘△ → ∅(zero)’의 변화를 겪지 않은, 말하자면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언이 있는데, 제주방언이 그 중 하나이다.

ㄹ세(刈애/가위, 剪), 므슬(므슬/마을, 里), ㄹ슬(ㄹ슬/가을, 秋)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음운과 음운변화상에서 제주방언의 중요성

은 고어의 보고라 일컬을 만큼 고어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운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 및 어휘상에서도 제주방언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드레 감수가?’(어디로 가십니까?) 또는 ‘어드레 감수광?’(어디로 가십니까?)에 보이는 ‘감수가’ 또는 ‘감수광’은 교류가 빈번해 지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문장이다. ‘감수가’와 ‘감수광’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다.

가- + -암시- + -우- + -가

가- + -암시- + -우- + -광

위의 ‘-암시-’(또는 ‘-암ㅅ-’)는 동작의 진행(또는 미완)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또 ‘-우-’(이형태는 ‘-수-’)는 상대경어법에 쓰이는 표준어 ‘-습니-’ 정도에 해당하는 선어말어미이다. ‘-가’ 또는 ‘-광’은 표준어 ‘-까’에 대응하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인데, 앞의 ‘-가’는 중세국어 ‘-가’에 대응하는 것이고, 뒤의 ‘-광’은 분화된 것으로 특이하다.

‘가당 물영 가쿠다.’(가다가 여쭙어서 가겠습니다.)에 보이는 접속어미 ‘-당’과 ‘-영’, 그리고 표준어 ‘겠’ 또는 ‘-ㄹ 것’에 해당하는 ‘-크-’, 칭자를 높이는 요소인 ‘-우-’ 등은 제주방언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들이다.

‘나 감찌.’(내가 간다)와 ‘우리 췌마씨/췌마썸/췌마썸’(우리 소입니다.) 등에 보이는 어말어미 ‘-저’와 접사 ‘마씨/마썸/마썸’ 등도 제주방언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말이다.

‘개염지(개미), 구쟁기·구쟁이(소라), 생이(새), 늪뻘(무), 바룻(해산물), 황고지(무지개), 굴쟁이·굴개·굴개기·굴각지(호미)’ 등은 어휘상이나 어휘 구성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어휘들이다.

제주방언의 독특한 맛과 멋은 제주의 지명이나 동·식물명 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제주의 지명은 제주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지명유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제주방언은 단순히 투박한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선인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이렇게 고어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문법이나 어휘면에서도 매우 독특한 제주방언도 교통신이 빈번해지고 마스크업과 교육의 영향 등으로 방언간의 격차가 줄

어 들면서 표준어에 동화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제주방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제주방언은 제주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말이고, 연면히 전통을 이어온 말이다. 국어는 제주방언과 같이 지역별로 여러 개의 방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각 지역 방언들이야말로 국어를 이루는 실체라 할 수 있으며, 이 방언들을 떠나서 국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논의할 때 각 문화는 언어의 지배를 받아 생성·발전한다는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을 따르지 않더라도 언어는 사고를 가다듬고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언어와 사고가 동일한 뿌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표현과 전달과정에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독특한 체계는 그 언어 사용자의 생활과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사고와 문화는 언어를 낳고, 그 언어는 다시 사고와 문화에 영향을 끼쳐 특색 있는 행동양식과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제주방언과 제주문화는 상대성을 지닌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어학적·방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주방언이 광복 후 학교교육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표준어 교육이 강화되었고, 제주도민의 생활언어이며 모국어인 제주방언은 제1언어(first language)의 위치에서 제2언어(second language)로 서열이 밀려나면서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이제는 외국어 서비스 강화 정책에 휘둘려 제2언어의 위상마저 빼앗겨 제3언어 이하가 되면서 그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기는 매우 힘들다. 의사소통의 잘 되는 언어를 버리고, 쓰임새가 별로 없는 언어를 배우고 익히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표준어인 국어와 외국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면, 제주방언까지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어에 대한 언어정책마저 정치·경제적 논리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정책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방언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관심권에서 밀려나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방언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2) 제주방언의 사용 실태

언중들 사이에서 방언은 표준어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과, 표준어 사용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 때문에 남들 앞에서 제주방언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은 노년층보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심해지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언어를 타 지역의 언어에 비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보인다. 제주도에 온 관광객들이 제주방언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우스개로 회화화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하는 제주도민들 중 일부 이를테면 관광 가이드들도 아름답고 고우면서 친근감을 자아내는 말보다는 과장되고 억지가 들어간 방언을 만들어 내려는 현상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오는 열등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방언 사용자끼리는 집단적 유대감과 친밀감, 주체성의 표시로써 자기 지역 방언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여성보다 남성들 쪽에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의 도시 집중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 방언 사이의 교섭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타 지역 언어에 대한 친밀감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 사람들은 그들 방언에 비해 고어 형태가 많이 유지되고 있는 제주방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여기고, 제주지역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인식하려 한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제주방언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방언은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거기다가 제주도민들은 방언보다는 표준어 습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제주도 각급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낮고 표준어 구사능력도 다른 지역 주민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언어의 보고인 제주방언을 잘 다듬어 가꾸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구분되는 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의 폭이 좁은 편이다. 그만큼 교류와 접촉 인구에 한계가 있고 소외지역이라는 열등감도 다소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제주방언은 타 지역으로의 전파나 표준어로의 동화가 더디었다고 할 수 있다. 열등감의 한 예로 제주방언 언중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방언보다는 표준어 구사능력이

뛰어나며 표준어 사용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 따라서 한 지역 언어의 사용 빈도와 언어의식 등은 그 지역 문화와 전통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사람들이 태어나서 모국어이며 생활언어로서 처음 배우는 말이 바로 제주의 방언이다. 아무리 오래 타향살이를 했더라도 옛 고향 친구를 만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제주방언이다. 그만큼 우리 내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제주방언이 자리잡고 있다.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라면 반갑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먼 타향에서 고향 방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겨운지 경험을 해 본 사람이면 다 알 것이다.

제주도에서 국어인 표준어와 더불어 외국어 사용이 보편화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국어와 혼용된 제주방언을 사용할 것이다. 표준어 교육이 강화되기 이전에 훌륭하게 구사되던 제주방언이 국어와 혼용되면서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 양상에 대한 반성과 대책 마련 없이 오래 지속되는 일은 제주방언의 활용과 보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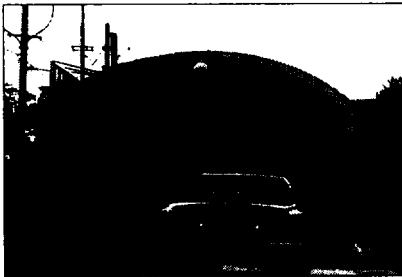
표준어인 국어와 혼용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상뿐만 아니라 제주방언의 사용 상태 중 가장 충격적인 현실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모음 '·(으)'와 'ㄴ(으)'를 거의 발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주방언을 표현할 때도 '으'와 '으'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표준어 '여덟'의 제주방언인 '으덧'이나, 미련하지 않고 영리하거나 똑똑하다는 뜻의 '으망지다'를 컴퓨터 언어로 표기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돌[月]과 '돌[石]의 발음을 구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물론 구분해서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 나아가 '·'로 발음하지 않은 어휘를 '·'로 적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는 제주방언의 발음과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테면 '돼지'의 제주방언은 '돛', '도새기' 또는 '도야지' 등으로 실현된다. 그것을 '돛', '드새기', '드야지' 등으로 적고 있는 사례가 많다. 성읍 민속촌 일대에서는 식당의 메뉴에서 '팽고기'의 제주방언인 '팽게기'를 '깁기'와 같이 엉뚱하게 표기하여 발음하기도 어렵고 의미도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방언의 표기 문제는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예가 적지 않지만, 잘못 사용하는 예도 흔하게 발견된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개 들

면서 방언 사용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호텔 입구에 ‘춧아와 쨩 고맙수다’(‘춧아와 쨩서 고맙습니다’의 제주방언)라는 말을 현수막처럼 걸어놓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 ‘춧아와’의 제주방언인 ‘춧아와’를 ‘춧자와’로 적는가 하면 심지어 ‘춧자와’로까지 적고 있는 실정이다. ‘고맙수다’의 경우도 ‘고맙쑤다’로 적고 있는데, ‘고맙수다’로 적으면 될 일이다. 우리말의 된소리되기 규정(표준발음법 제23항)에 따르면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시’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 1 : 제주방언의 사용 실태〉



〈사진 1〉은 제주시 용담동 제주국 제공항 인근에 있는 속칭 ‘먹돌세기’의 농·수산 직매장 입구를 찍은 것이다. ‘먹돌세기’라는 제주방언으로 된 고유 지명을 살려 쓴 것이 매우 이채롭다. 더욱이 ‘춧자와쨩 고맙쑤다양’과 ‘하영 들어왕 뽕쑤, 뽕딱 있수다’라는 제주방언을 살려 쓴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방언 표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방언을 쓰면서 좀더 신중했으면 더 좋은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춧자와쨩’은 ‘춧아와 쨩’으로, ‘고맙쑤다양’은 ‘고맙수다, 양’으로, ‘뽕쑤’는 ‘뽕서’로, ‘있수다’는 ‘잇수다’ 또는 ‘이수다’, ‘잇수다’, ‘시수다’로 쓰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사진 2 : 제주방언의 사용 실태〉



식당이나 음식점 출입문에 ‘흔저 읍서’라고 쓴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흔저’를 ‘흔저’로 쓰거나 ‘읍서’를 ‘읍쑤’로 쓴 사례가 허다하다. ‘흔저 읍서’는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사실은 이렇게 ‘어서’와 ‘오십시오’를 띄어서야 하나 붙여 쓴 곳이 대부분이다.)에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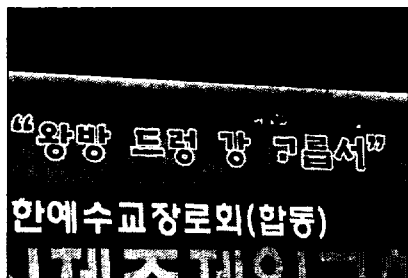
못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사진 2>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음식점 입구를 찍은 것이다. 음식점 이름에 친근감 있고 반가운 제주방언을 살려 쓰고 있어서 매우 정겹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제주방언을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흔저웁서예’는 ‘흔저 읍서, 예’로 써야 하지만,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제주방언이라 하기 어렵다. 제주도 관공서에서도 자주 쓰는 제주방언 중 하나인데, 볼 때마다 어딘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최근에 서귀포시에서 세운 표지판에 ‘어서 오십서’라고 썼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어서 오십서’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든다. ‘츄좌와쨩고 맵수다’도 ‘츄아와 쨩 고맵수다’로 써야 옳다.

표준어에서 ‘반갑게 맞아들이거나 간절히 권하는 말’로 ‘어서 오십시오’를 쓰는데, 과연 제주방언 ‘흔저 읍서’에 이러한 뜻이 담겨있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흔저 읍서’는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상황에서 ‘빨리 오십시오’ 정도의 뜻을 가진 말로,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썼던 말은 아니다.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억지로 쓰고 있는데, 조심할 일이다. 한길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을 뜻하는 ‘올레’도 ‘올레’로 적고 있어서 아쉽다. ‘올래’는 ‘올레’로 써야 옳다.

<사진 3 : 제주방언의 사용 실태>



<사진 3>은 노형동에 있는 한 교회 안내판을 찍은 것이다. 위쪽에 정겨운 제주방언을 살려 써서 매우 반갑게 느껴진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제주방언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왕방 드렁 강 굴읍서’는 ‘왕 방 들렁 강 굴읍서’로 띄어 써야 한다.

표준어로 고치면 ‘와서 보고 (말씀을) 듣고서 가서 말씀하십시오.’라는 뜻이다. 특히 ‘드렁’과 ‘굴읍서’를 소리나는 대로 써 버린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제주방언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

‘꺄랑 몰라’(말로 해서는 몰라)의 용례는 ‘꺄랑’의 어간형이 ‘꺄다’ 또는 ‘꺄다’로 실현되어 ‘꺄양’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꺄랑’으로 쓰고 있다.

<사진 4 : 제주방언의 사용 실태>



<사진 4>는 제주시 서사라에 있는 한 음식점 입구를 찍은 것이다. 순수한 제주방언을 이용해 음식점 이름으로 쓴 것이 매우 정겹다. '제대로 하다', '진짜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제주방언 '재라하다'의 관형사형을 이용한 것이다. '재라한'도 제대로 표현한다면 '재라한' 또는

'재라한' 정도로 나타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사진 5 : 제주방언의 사용 실태>



<사진 5>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빵집 입구를 찍은 것이다. 제주방언을 살리고 '빵집'을 덧붙인 'ㄱ튼올레빵집'이 아주 이색적이면서 얼마나 살가운지 모른다.

'같다'의 제주방언 'ㄱ트다'의 관형사형을 살린 'ㄱ튼'에, '거릿길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뜻하는 '올레'를 붙인 것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ㄱ튼 올레 빵집' 정도로 띄어쓰기를 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아무튼 매우 정겨운 이름임에는 틀림없다.

<사진 6 : 제주방언의 사용 실태>



<사진 6>은 제주시 일도동의 한 음식점 상호이다. 제주방언 '옴데강'을 표준어로 바꾸면 '오셨습니까?' 정도가 된다. 표준어 '오셨습니까?'를 음식점 상호로 사용한 곳은 없으므로 안다. 그런데 제주방언 '옴데강'은 얼마든지 상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반갑다. 한편

‘옴데강’의 경우, ‘*옴데광, *옴데깡, *옴데깡’과 같이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의 변이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직 ‘옴데강’ 하나만 실현된다. 그런데 ‘감수광’(가십니까?/가고 있습니까?)의 경우, ‘감수광, 감수깡, 감수팜, 감수짜, 감수깡, 감수까’ 등과 같이 변이형이 다양하게 실현된다.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제주방언 사용의 혼란과 오염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지명이나 거리명, 주소명 등을 정비하고 새로 제정하여 기록하고 부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전래해 오던 고유한 방언을 버리고 표준어화한 표현을 즐겨 쓰고 있다. 지명이나 거리명에 귀에 익어 친근감 있고 정겨운 제주방언을 가급적 많이 살려 써서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방언 사용의 그릇된 용례를 몇 가지 들어보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방언의 남용과 요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제주방언을 모르는 언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학교교육을 받은 젊은 층일수록 제주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와 같이 잘못 사용하는 예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주방언을 올바르게 말하고 쓸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생활에서 외면되거나 무시당하고, 생활언어로서 쓰임이 없는 방언은 얼마 못 가서 소멸될 위기에 놓일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4. 제주방언의 미래와 보존 방안

1) 제주방언의 미래와 과제

생활언어로서 제주방언을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것은 제주 지역 주민들로서는 큰 자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방언이다. 왜냐하면 방언은 그 방언 사용 지역문화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방언이 없는 제주도 문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제주방언 없이 제주문화를 바르게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주방언을 지키고 보존해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할 만한 유물들을 문화재라고 하고, 그 중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국보라고 한다. 제주방언은 바로 우리 국어의 국보라 할 수 있다. 제주방언은 제주지역 주민들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방언을 제1언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주 지역 주민들은 모두 국보적 존재인 셈이다. 스스로 국보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배로운 제주방언을 지키고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만큼 방언 지킴이로서 책임이 막중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제주방언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시켰다는 불명예를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학교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표준어가 효율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에 의해 표준어 사용이 늘고 있지만 당장은 제주방언이 완전히 사라지고 표준어로 언어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방언 사용자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보고 들으면서 표준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제 생활언어는 표준어가 아니고 제주방언이다. 즉 표준어와 방언의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방언을 사용하는 언중들에게는 표준어가 감정상 생경하여 거리감을 주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할 경우 화자와 청자 사이에 친밀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끼리 표준어로만 대화를 하려 들면, '너 언제 서울 갔다 왔니?'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일지역 언어 사용자끼리 상호의사소통력과 동질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언을 주로 사용하는 부모세대와 표준어를 주로 사용하는 자녀세대 사이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는 섬세한 감정교환이 어려우며 어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은 제주방언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원형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표준어와 동화되면서 사용될 것이다. 제주방언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 원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교육시키며 보존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언어란 그 역사성과 사회성 때문에 지속의 측면 못지 않게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방언이 아직 위기라고까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학교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표준어 사용 인구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에는 방언 보존에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가정과 학교에서 제주방언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표준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까지 주로 표준어로 의사소통을 해 왔다. 과거 각급 학교에서 표준어 보급과 정착을 위해 교사나 학생이 표준어를 쓰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 버렸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에서는 제주방언을 구사하면 시골 아이로 촌스럽다고 여겼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방언보다는 표준어를 구사하고 또 가르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시골뜨기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사용할 수 있어야 방언 보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2~30대의 젊은이들이 제주방언의 모음 ‘·’를 제대로 발음할 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앞으로 그냥 방치하면 제주방언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올바른 언어 교육이 뿌리내려야 한다. “모국어는 자연적인 습득, 외국어는 인위적인 학습방법”³⁾을 통해 익힌다. 언어습득이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무의도적이며 주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는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인위적으로 학습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취학전 유아기에서부터 가족과 이웃 등 인간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체득되는 것이 모국어이다.

셋째, 제주방언의 접촉 기회가 적어지는 원인 중의 또 하나는 방송, 텔레비전, 영화, 정보·통신 등 대중매체에서 방언 사용을 거의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방언을 대중매체에서 즐겨 선택하지도 않으며, 설사 선택한다 해도 연기자들이 제주방언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그것은 타 지역 출신 연기자들이 제주방언을 배우기가 어렵고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방언 발음이 시청자나 관객들에게 어색하고 낯설게 들리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례로 꼭 언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제주방언을 사용한 영화 「이재수」가 흥행에 실패했던 사실도 방언 보존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 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다른 지역방언은 관광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다. 그것은 이 지역 출신들이 사회 각 방면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현상과 관련되며, 따라서 그들 방언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언어의 통용 능력이 국가간의 국력이나, 지역간의 발전 여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앞으로 급격하게 사라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3) 조동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 나남출판, 2001, p.16.

첫째, 우선 모음인 ‘으’와 ‘우’를 구별해서 발음하고 알아들을 수 없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으’와 ‘우’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주방언에서 ‘돌’[月]과 ‘돌’[石]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제주방언 ‘으망지다’의 어근인 ‘으망’과 표준어인 ‘요망’(妖妄) 같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제주방언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생활어휘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젊은 사람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굴갱이’(호미), 호미(낫), ‘중계호미’ 등 농·어업 관련 도구류 어휘는 물론 ‘ㄱ메기, 보말, 귀, 미’ 등의 해산물 관련 어휘도 표준어에 밀려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다.

셋째, 때를 나타내는 ‘아시날·아싯날’(그 전날, 前日), ‘흐레기·흐르기’(며칠 전) 등도 거의 사라져 이제는 아는 사람도 드물어졌다. 이러한 생활어휘도 지금까지 사용 언중인 노년층이 사라지면 함께 소멸될 것이라 본다.

넷째, 문법형태소도 표준어에 밀려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사라지고 있거나 사라질 운명에 처한 제주방언을 살리는 길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방법은 오히려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지역에서만은 일상적 생활언어인 제주방언으로 말하고 쓰게 하면 되는 일이긴 하다. 그런데 생활언어로 쓰는 일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히 방언으로 치러지는 말하기 대회, 연극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통해 방언을 지키려면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말하기 대회는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억지 상황을 연출하고 억지 억양으로 제주방언을 발음하게 하고 있어서 현재성·현장성을 살려내지 못해 실감 있게 들리지 않는다. 연극대회도 제주방언이 실현되는 상황은 말하기 대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차제에 제주방언 사용의 전국적인 확산과 보급을 위해, 나아가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방언정책과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은 없는가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언어와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널리 전파시키려는 노력은 그만큼 보람있고 값진 일이라 할 수 있다. 월드컵 경기 때 보여준 국민적 응원문화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이며, 전 세계가 놀라고 격찬한 자랑스러운 문화이다. 축구경기에 대한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호 다음에 이어지는 엇박자에서 배어 나오는 신명나는 놀이문화를 통해 보여준 국민적 결속력은 세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 불가능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국어와 제주방언, 국어와 외국어, 외국어와 제주방언 사이에 언어적 충돌현상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것이다. 그것은 언어적 충돌이며 동시에 문화적 충돌이다. 충돌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패가 갈려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상적으로는 적정선에서 타협과 공존을 바라지만, 언어의 공존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의 공존은 어느 한쪽이 패배해 소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문제에서는 특히 그렇다.

일례로 미국에서 영어와의 언어적 충돌로 이미 소멸해 버린 인디언 언어를 재구성해 내려는 노력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비용과 대가만큼 인디언 언어의 원형복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주방언의 보존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세기 동안 여러 종족과 인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언어적 역할을 영어가 수행해 왔다. 이제는 미국 내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공용어로 인정받으려는 노력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일이다. 중세 서양에서 전 로마제국의 공통어가 되는 등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언어는 라틴어였다. 이 라틴어가 오늘날은 극소수 학자와 종교인들만 배우고 익히는 고전어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생활언어였던 제1언어에서 쓸모 없는 제3언어로 밀려나게 된 제주방언은 죽은 언어[死語]이며, 박제(剝製)된 언어가 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실생활에서 제주방언은 사라지고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가야만 겨우 문헌이나 자료 형태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죽은 언어로서 도서관 언어이며, 박물관 언어이다. 필요에 의해서 일상적인 쓰임이 있는 언어와는 달리 쓸모가 없어 일반 언중들의 관심권에서 밀려나면, 그 언어의 생명력을 어떻게 지켜 갈 수 있을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2) 제주방언의 활용과 보존 방안

세계의 어떤 표준어나 방언도 공통적으로 변화하고 사멸해 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현상 때문에 세계 각국은 모국어를 지키고 다듬으며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형의 언어 유산도 자랑스럽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활용함은 물론, 그것을 채록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실제로 방언과 표준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정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방언을 일상적 생활언어로 사용하는 노년층보다는 표준어가 생활언어인 젊은 한글세대가 증가하면서 제주방언의 원형 보존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방언의 소멸 원인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보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언어학이나 방언학 관련 전문 지식인들의 힘을 모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방언을 지키고 다듬으며 보존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만한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방언의 표기법 원칙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음운과 문법, 어휘와 발음, 표기법 등에서 누구나 공감할만한 통일된 원칙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또 시급한 일이다. 여러 해 전 지역 연구단체인 '제주방언연구회'에서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다. 이 제주방언 표기법이 공청회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제주방언 표기법 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표기법 원칙을 확정지어 표기함으로써 문화유산으로서 제주방언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표기법 원칙이 확정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자료가 수록된 방언사전의 발간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간행한 『제주어사전』 등 두어 종의 방언사전이 나와 있다. 이미 간행된 이 사전들은 어휘상이나 내용면에서 아직은 빈약한 편이다. 기존 방언사전이 대부분 개인의 작업인데다가 한정된 기간에 이루어진 성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제주방언사전이 질과 양적으로 방대해질 필요가 있다. 연차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을 수립하여 방언사전에 수록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간행되어야 할 사전은 어휘중심보다는 용례중심의 방언사전을 편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간행된 방언사전은 대부분 어휘중심 사전이었고, 수록된 어휘들 중 많은 부분이 죽은 언어로 사어화(死語化)한 어휘들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어화한 어휘들은 용례가 달리 없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사전 편찬 작업과 같은 방대한 사업은 개인이나 학교 연구소 등에서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다. 국립 국어연구원과 같이 '국립 제주방언연구소'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방언이 소멸되고 난 후, 방언사전을 펴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초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전보다 체계적인 제주방언 보존뿐만 아니라 그에 대

한 교육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언어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 가정에서 방언이 생활언어로서 제1언어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표준어나 외국어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방언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제주방언이 가정과 학교에서 쓰이지 않게 되고, 현재 방언 사용 연령이 점차 사라진다면 제주방언도 어쩔 수 없이 소멸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주도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방언 보존에 중대한 위기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이다. 방언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은 방언 보존 전망을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일이 가정과 학교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듯이 방언의 활용과 보존 문제도 같은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방언이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점차 인지도가 낮아져 낯설어지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보존과 전파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라져 가는 방언을 영상으로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비디오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듣는 대화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컴퓨터로 재기록이 용이하도록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라져 가는 발음(음성)에 대해서 정확한 발음법과 입 모양 등을 직접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외국어 교육처럼 발음을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음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국에 이미 비치된 자료들 중에서 재편집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문가와 공동제작으로 재편집하여 보존하고 각종 교육에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군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투리경연대회' 자료를 엄선한 것이나 지역 방송국에서 이미 채록된 민요와 서사무가 자료 등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언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다만 대본을 작성한 자료는 대본 작성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방언을 표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와 고증이 필요하다. 'BBC 영어'처럼 공영방송에서 모범적인 발음과 표기법 등을 일상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학교 교육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에 그 지역 방언으로 수업을 한다. 전국 규모의 연구 수업 시간에도 방언을 섞어서 수업하는데 교사나 학생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방언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언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교사나 학생들이 모두 웃어버리는데, 이것은 제주방언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고 방언 사용이 교양과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학교 급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제주문화에 대한 열등감의 한 양상일 수도 있다. 관혼상제 때 사용하는 일상적 생활언어 정도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언을 모두 표준어화 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언은 그 방언권 내에서는 생활언어로서 공통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화·규범화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언에 대한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방언 교육 대상을 넓게 잡으면 언중 전체가 되겠지만, 체계성을 전제로 할 때는 학교교육을 통해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문학작품을 통해 가급적 방언을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살려 쓰고 싶은 방언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제주 출신 문인들의 시와 소설 등 작품에서 방언을 일부 활용했던 전례가 많지만, 그 사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방언을 사용한 작품들은 다른 지역 독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타 지역 방언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설에서 부사어나 연결어미, 종결어미 정도는 방언 사용도 무난하다고 본다.

여섯째, 관광업 종사자 특히 관광 가이드들에게 제대로 된 방언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주방언의 음운, 의미, 유래 등을 자세히 알게 하고, 그 중요성과 보존 가치를 새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에게 제주방언을 회화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억지로 말을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제주방언을 병기한 관광정보를 담은 지도나 팸플렛, 관광 안내판이나 각종 표지판 등 정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거나, 제주방언으로 된 일상회화 책자를 제작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자료를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올바른 방언 지식을 갖게 되고 남에게도 바르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방언을 생활언어로서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는 ‘영어마을’처럼 방언만 쓰는 민속마을이나 공연장 등을 지정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 지역 대학이나 행정관청 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칭 ‘언어교육원’이나 ‘방언연구소’, ‘방언보존회’ 같은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보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일

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방언으로 된 민속자료나 문화자료를 생산하여 널리 보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제주시가 2002년 초 전국 최초로 제주방언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고훈만(제주시 건입동)씨를 무형문화유산(제주시 문화유산 무형문화분야 제2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일은 제주방언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 준 것으로 제주방언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기할만한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며,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차원의 제주방언 보존 대책과 제주방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 교육을 받고 연구한 사람을 통하여 기초적인 발음과 문법 교육은 물론 실용회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부모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이니까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제주말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사람이니까 국어교육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한국말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거나 쓴 글이 엉망인 사례가 비일비재하듯이 제주방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주말로 쓴 글은 더 엉망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제는 제주방언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여,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은 물론 관광 안내를 하는 관광 가이드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려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교재로 쓸 수 있는 교재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어회화, 일어회화를 배우듯이 제주방언 회화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영상교재 같은 것도 개발해야 한다.

방언 하나를 표준어로 승격시키려면 문학작품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언중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방언에서 살려 쓸만한 좋은 단어들을 찾아내는 일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 보다 앞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방언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할 일이다. 언중이든 교사든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하위언어, 저급한 언어이며 품위 없는 언어라는 그릇된 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한다.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독자적인 언어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대등한 위치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만 표준어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서 방언 교육에 입해야 하며, 왜 방언 보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언어는 쓸모가 없거나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쓰지 않으면 잊혀지고 소멸된다. 제주방언을 아름답게 살려 쓰고 후세에까지 보존하자면 그것을 일상적으로 즐겨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주인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가 녹아 응축되어 있는 제주방언을 다듬고 지키는 일은 제주인 모두가 일상적으로 즐겨 쓰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본다.

5. 결 론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국어에 대한 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이전까지 제주도에서는 제주방언만이 생활언어로서 제1언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방언이 생활언어로서 사용되던 시기에는 제주방언이 언중들 사이에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고어의 보고로서 언어학·방언학적 중요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제주방언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광복 후 일본식 교육의 잔재를 척결하고 새로운 국어정책이 시행되면서 학교교육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표준어 사용 위주로 언어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자 제주방언은 생활언어인 제1언어의 위상에서 표준어를 보완하는 제2언어의 위치로 그 서열이 낮아지게 되었다. 제주방언의 서열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공공생활에서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적으로만 사용되면서 장년층 이상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것이 젊은층으로 갈수록 방언의 사용과 습득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그만큼 제주방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표준어인 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생활언어인 제주방언은 그 정체성에 큰 위기를 맞게 되면서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국어와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제도가 정책적으로 강화되면 제주방언은 그 언어 서열이 더욱 낮아져서 제3언어 이하로 밀려나게 될 것이 뻔하다. 제1언어의 위상을 유지하다가 제3언어 이하로 밀려나게 된 제주방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제주방언은 이제 쇠퇴기를 지나 소멸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방언 사용의 전성기에서 쇠퇴기를 맞은 기간만큼 세월이 흐르면 오늘날 느끼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올

까 두렵기도 하다.

언어가 소멸되면 그에 수반하여 다른 많은 문화적 요소와 특성들이 함께 사라지게 된다. 언어들 사이에서 일단 소멸된 언어는 생태계에서 한번 사라진 종(種)이 다시 생겨나지 않듯이 복원될 수 없는 일이다. 설사 어렵게 복원된다 해도 그것은 원형복원이 아니라 부분적이거나 기형적인 복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제주방언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주방언의 존재 가치가 일차적으로는 표준어인 국어에 밀리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여러 외국어들에 의해 위협받아 관심권에서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주방언의 표기법 원칙을 확정하고 ‘방언연구소’를 만들어 방언사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주방언의 활용과 보존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방언을 생활언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동아일보 2002. 9. 17

김윤경·김영서 역, 「언어전쟁」, 한국문화사, 2001.

유영난 역, 데이비드 크리스털 저, 「왜 영어가 세계어인가」, 코기토, 2002.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98.

정시호, 「21세기의 세계 언어전쟁」, 경북대학교출판부, 2000.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집」, 2002.

조동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 나남출판, 2001.